





##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선적식 개최

우리협회와 서울신문, CBS기독교방송, 굿네이버스는 지난 3월 21일(화) 인천항에서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 선적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적식은 협회 이승호회장을 비롯, 서울신문 채수삼사장, CBS기독교방송 김향진전무, 굿네이버스 이일하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되었다.

이전에 진행된 통일우유 2차 지원은 우리협회 등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으로 멸균유 100톤, 분유 13톤 등을 마련, 21일 오후 인천항을 떠나 북으로 반입된다. 또한 통일우유는 북한의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9개 육아원시설(남포, 해주, 사리원, 원산, 해산, 청진, 평양, 신의주, 통천)에 전량 보급되어 자라나는 영유아들의 영양균형과 체위향상 등에 기여하게 된다.

협회 이승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낙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 우유가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남북화해협력 등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우유 1차분(우유 10톤, 분유 5톤)이 북한에 지원된 바 있다. 🇸🇰

1, 2 컨테이너에 통일우유(멸균유 100t, 분유 13t)가 적재되고 있다.

3 인천항에서 통일우유가 적재된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있다.

4 각 단체관계자들이 통일우유가 북한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 손을 흔들고 있다.

